



**교복 한벌에 5000원** 13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교복 나눔행사'를 열기 위해 중·고교생들로부터 기증받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광산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주민센터 등이 기증받은 교복을 2000원~5000원에 판매하는 나눔행사를 개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뉴스 초점

민주컷오프 2명 압축...광주·전남 관세 영향은?

# 현역의원 30~50% 물갈이 전망

탈락 후보들 무소속 출마 러시  
예비 후보들 단일화 동력 약화

민주통합당이 정채성 심사를 강화한 '컷-오프'를 통해 양자 구도의 국민 경선을 실시하는 공천 심사 기준 및 방법을 확정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총선 구도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주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한 각 예비 후보 캠프에서는 컷-오프를 세심하게 검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갈이 폭은=민주통합당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다면 평가와 정채성 심사 강화, 양자 구도의 국민 경선 등을 거치면 '물갈이' 폭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 지역의 경우, 최소한 30%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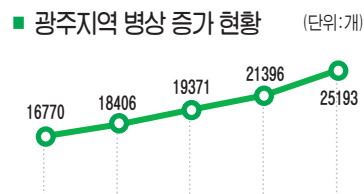
상, 많게는 50% 이상, 현역 국회의원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광주·전남지역에서 3~4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 심사에서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국민 경선에서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고배를 마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철구 민주통합당 공심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와 정채성이 강화된 공천 심사, 양자 구도의 국민 경선으로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교체될 것"이라며 "이처럼 잘 제도화된 방법으로 공천혁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혼전 구도 형성=양자 구도의

국민 경선이 치러짐에 따라 컷-오프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접전·경합 지역구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컷-오프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로 선거 구도가 혼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점수가 30% 밖에 되지 않고 공심위원들의 심사에 의해 70%의 점수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무소속 출마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여기에 야권연대와 여성 전략공천 등이 현실화된다면 이에 반발하는 예비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이탈, 일부 지역구는 그야말로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혼전이 펼쳐질 수 있다.  
◇조직력과 단일화=일단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천 심사만 통과한다

면 승산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 경선이 모바일 및 현장 선거인단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세한 조직력을 동원한다면 공천 티켓을 손에 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자 구도로 국민 경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컷-오프 과정에서의 과열 경쟁으로 예비 후보들의 단일화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바닥 민심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큰데다 컷-오프에 탈락하는 주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광주 모 지역구의 경우, 컷-오프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국민 경선에 진출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 현역 국회의원을 교체하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의료시장 무한경쟁

최근 5년새 병상 50% 늘어 전국 최고  
요양병원 3배 증가 분만산부인과 줄어



광주지역 병·의원의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져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있으나 무한경쟁으로 인해 병원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령화 비율로 인해 요양병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의 병상은 57만3566개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의 44만2650개와 비교해 29.6%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 증가율을 보면 광주가 50.2%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42.1%, 전북 37.3%, 충남 35.6%, 경기 33.0%, 전남 30.8%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19.0%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도 광주가 17.3개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종합병원급

이 10% 가장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6만6941개에서 13만4843개로 배 이상 뛰었다.  
기존 병원들이 환자 유치가 타 분야보다 용이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개업도 늘면서 광주의 경우는 2007년 요양병원이 7개소에서 2012년 23개로 3배 이상, 전남은 9개소에서 45개소로 5배 급증했다.  
이 같이 높은 병원 증가세는 자연스럽게 서비스 경쟁의 가속화를 촉진, 광주·전남지역 병원들의 고가의료장비 보유 대수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0~40억원에 달하는 MRI(자기공명영상)와 CT(컴퓨터 단층촬영)의 보유(인구 100만명 당)는 광주가 1위, 전남이 4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의료장비 현황에 의하면 인구 100만명당 CT는 광주시 50.9대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47.7대·전북 47.1대·전남 46.4대 순이었다. MRI 역시 광주시가 32.

3대로 최고였으며 서울 25.3대·울산 24.9대·전남 24.5대 순이었다.  
병상 증가 추세와 달리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는 5년 사이 1015개에서 911개로 10.0% 감소, 전체 산부인과 2047개 가운데 분만 병원의 비율은 44.5%에 그쳤다.  
더욱이 광주지역의 경우 분만 산부인과 비율이 26.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시내 산부인과 10곳 가운데 7곳은 분만실이 없다는 얘기로, 임신부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고는 출산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 H종합병원 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이미 병원과 병상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선 만큼 적절한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는 물론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에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강운태 시장 설치 건의 정부·청와대 수용

광주에 호남권 최초로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국회확보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하급열 대통령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에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설치를 건의했고,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테마파크 등 3개 정도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뒤 관세청에 외국인 시내 면세점 유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 부산과 제주 2곳 등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권에는 면

세점이 없어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관광객 유치와 관광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호남권 최초로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설치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리에서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사업 추진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문화기술연구원 조기가시화 ▲국립광주과학관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 여수 박람회장내 롯데면세점

박람회 기간 한시 운영...내국인도 이용

롯데면세점이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 면세점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출국을 앞둔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 박람회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관세청과 여수세관에 따르면 (주)호텔롯데면세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부에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8일 여수세관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5일 '한시적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24일까지 박람회 기간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신청서와 함께 면세점 운영 계획 및 면세품 관

리방안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신청서 접수가 마무리되는 24일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5 Point Whitening

피부 속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밝히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피부 속 빛의 길이 막히면 얼굴빛이 칙칙해지죠. 속부터 맑고 환한 피부를 원한다면 더욱 진화된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을 만나세요. 헤라의 바이오 기술이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생생하게 밝혀줍니다. 마치 피부 속에 5개의 조명을 탁 کن 것처럼.

5 Point Whitening이란?  
제대로 된 화이트닝의 증거로서 이마, 양볼, 콧등, 턱 5군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일광입니다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NEW  
미백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  
식용색소 안전성

지금 헤라 페이스북에서 당신의 빛을 찾아보세요  
www.facebook.com/hera.kr

HERA

· 유통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